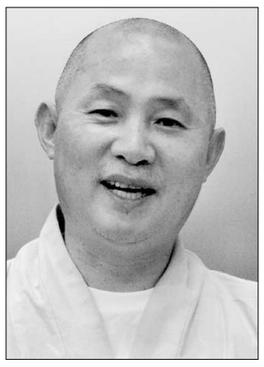
중국 선사들의 생애와 사상 조명



"중국 선종사찰을 한 달간 참배하면서 조사 스님들의 얼이 담기고 혼이 담긴 유적을 둘러보면서 느낀 소감과 선사들의 사상을 정리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부터 6시 20분까지 불교방송에서 선학강좌를 하고 있는 해운 스님(서울 해인선원 원장 · 사진)이 방송내용을 정리한 <중국선종사상사>를 발간했다.

<중국선종사상사>는 인더스 문명과

▮'중국선종사상사' 발간한 해운 스님

선의 풍토, 고대 인도문명과 요가, 붓다의 명상과 선정사상등 불교이전의 원시불교에서부터 선을 시작하고 한국 중국 일본에 선을 전달한 달마대사의 선사상을 다룬다.

이어 기라성같은 선사들을 소개한다. 혜가, 승찬, 도신, 홍인, 육조 혜능, 남악회양, 마조도일, 황벽희운, 임제의현 선사가 대표적. 이 책에서는 이들 선사들의 생애와 사상을 설명하고 있다. 또 위산영우, 앙산혜적 선사의 사상을 중심으로 한 위앙종의 성립과 보리달마와 연수선사, 종경록에 나타난 마조선, 승찬선사의 신심명등이 수록된 법안종편도 실려있다.

부록으로 실린 중국선종사찰 화보와 중국선종사 계보도 눈여겨 볼만하다.

스님은 "<중국선종사상사>는 선이 중국을 거쳐 자연스럽게 한국불교로 넘어와 우리문화로 자리잡은 간화선을 강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근래에 들어와 여타 수행법이 많이 성행하고 있지만 조계종 수행법이 간화선인 만큼 이를 선양하는데 일조를 하고싶다"고.

스님은 "임제종 법을 이어온 태고보우국사 스님께서 불조의 혜명을 가르쳐 준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 책을 통해 많은 불자들이 선불교에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해운 스님은 해인사에서 지관 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여 해인승가대학을 졸업하고 일본 대정대학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스님은 동국대 중앙승가대 강사를 거쳐 경국사 총무, 해인사 포교국장 교무국장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시집 <이길이 나는좋아> <불교성전>이 있다. 연구논문으로는 '달마대사의 선사상' '혜가대사의 선사상' '오조 홍인의 선사상' '마조도일의 선사상' '임제의현의 선사상' '영명연수의 선정융합사상' '영명연수선사의 선사상' '영명연수의 교선일치사상' 등 17편이 있다.

중국선종사상사
해운 지음 | 한스정보 | 9000원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새로운 관점으로 본 '천수경'

천수경의 새로운 연구
김호성 지음
민족사 | 1만8000원

우리나라에서 널리 읽혀지는 경전인 <천수경>.

동국대 인도철학과 김호성 교수가 학문적인 입장을 배제한채 호교론적으로 접근한 <천수경의 새로운 연구>를 펴냈다.

15년 동안 <천수경>을 연구해온 김 교수는 <천수경>과 관련한 5편의 논문을 실었다.

1편 '원본천수경과 독송용 천수경의 대비'는 김교수가 2002년 연구년을 얻어 일본 교토의 불교대학에서 공부하던 시절 <천수경>을 보는 새로운 눈을 열면서 쓴 논문이다.

2편 '관음신앙의 유형과 고찰'은 화엄 반야법화 선과의 관련성 속에서 관음신앙을 재조명하고 <천수경>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의 수용양상이 다름을 살펴보고 있다.

3편 '일음교에 있어서 천수경의 위상'은 다양한 불교사상이라 하더라도 그 근본 이치에 있어서는 일음(一音)이라고 보는 관점과 <천수경>이 차지하는 위상을 살펴보는 논문이다.

4편 '선종에서 대비주를 독송하는이유'는 대비주와 다라니가 어떤 기능을 하는가 하는 점을 천착한 논문이다.

5편 '독송용 천수경에 대한 언어적 재해석과 그 적용'은 진언을 우리가 일상속에서 쓰는 유의미의 언어 그 자체를 진언이라고 하는 제2 진언수행론을 고찰한다.

인생 살아가는 지혜

삶의 지침서 인생경 김기상 지음 | 백교 | 3만2000원

불교와 유교, 기독교등 동서고금의 현인과 철인들, 인류사에 커다란 자취를 남긴 사람들, 부와 성공을 성취한 사람들의 경구와 명언을 소개한 책이 나왔다.

삶의 지침서 인생경은 다양한 종교, 여러 성현의 진리를 꿰뚫는 말씀 중에서 삶에 구체적인 도움을 주며, 살면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가르침만을 집성하였다.

인간편 처세편 도덕편 지혜편 신앙편 사랑편 충효편 총 7부로 나누어 5457구절을 수록한 이 책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바르고 아름답게 꾸려나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저자인 김기상씨가 광범위한 독서를 바탕으로 1985년부터 최근까지 200자 원고지 4000매 분량에 달하는 수기노트를 완성했다. 이 내용중 평범한 사람들의 일과 삶, 인간관계의 관점에서 누구나 쉽게 음미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구절을 모았다.

동국대학술총서 2권 발간

묵조선 수행법 특징 상세 설명

묵조선의 이론과 실제
김호귀 지음
동국대출판부
1만2000원

좌선을 종지나 방법으로 삼고 깨침으로 간주하는 수행이 묵조선이다.

묵조의 의미는 본래 깨어 있는 좌선을 의미한다. 즉 묵이 좌선하고 있는 몸의 모습이라면 조는 성성하게 깨어 있는 마음의 모습을 가리킨다.

동국대 강사인 김호귀씨가 발간한 <묵조선의 이론과 실제>는 이와 같은 묵조선의 성격과 그 특징 그리고 묵조선 수행의 실제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특히 안심입명(安心立命)과 깨침을 추구하는 선에서는 몸과 마음은 경중의 차이가 없다는 신심일여(身心一如)의 도리를 강조한다. 또 묵조선의 깨달음인 자기구제는 물론이고 타인의 구제를 목표로 삼는 자각(自覺)과 각타(覺他)가 대승정신의 발로임을 강조한다.

묵조선은 지관타좌(只管打坐)로 함축된다. 즉 좌선은 올바른 육체와 마음을 드러낸다는 지관타좌는 묵조선 수행법의 특징을 가장 잘 설명한다는 것이다.

정법안장수문기
이재경 옮김
동국대출판부
1만원

日 조동종 종조 도겐 선사상 정리

일본 조동종의 종조인 도겐(1200~1256)의 법어집 성격을 띤 저술로 그의 제자 에죠(1198~1280)가 스승의 가르침을 3년간 정리, 기록하여 전해온 책인 <정법안장수문기>.

총 6편으로 구성된 <정법안장수문기>는 무상관과 청빈사상, 그리고 도겐의 대표적 선사상이라 할 수 있는 일념으로 좌선하는 것과 자유자재한 무심의 경지가 잘 묘사되어 있다. 특히 법은 일본 선종사적으로 '도겐선'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만들어졌을 정도로 사상적 ·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엔죠의 <정법안장수문기>는 도겐의 육성을 비교적 이해하기 쉽게 한문체가 아닌 일상적 언어로 주제별 대화법의 형식을 빌어 전하고 있어 불교를 모르는 초심자라 해도 불교의 진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책은 수행본위의 구도정신으로 민중생활로의 사상적 외연을 넓혀나간 도겐선사의 정법사상과 선사상의 일관된 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귀중한 저술이다.

목표가 있어 비굴할 수 없었던

괴짜작가의 '청춘'

바보 같은 천재, 광인 같은 기인으로 불리며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해 온 소살가 이외수씨(사진). 그만의 언어철학을 완성하는데 토대가 됐던 괴벽과 기행으로 유명한 그의 젊은 날은 과연 어떠했을까?

문학에 대한 열정 빼고는 가진 것 하나 없었던 그가 살면서 느낀 고난과 아픔, 그리고 사랑 이야기를 담은 두 권의 산문집 <내 잠 속에 비 내리는데>와 <그대에게 던지는 사랑의 그물>이 각각 새롭게 출간됐다.

<내 잠 속에 비 내리는데>에는 대학교육에 염증을 느껴 자퇴한 후 스스로를 괴롭힘으로써 날카로운 작가정신을 연마하던 습작 시절을 적고 있다.

또 '아직도 살아 있느냐'는 친구들의 비웃음 섞인 인사를 받으며 춘천시내에서 매일 20원을 구걸해 번 데기를 사먹던 젊은 예술가의 고뇌가 생생히 기록되어 있다.

<그대에게 던지는 사랑의 그물>에는 이외수가 치러낸 사랑과 그리움의 기억들로 채워져 있다. 고독한 사랑의 열병을 앓던 이외수가 운명적인 여자를 만나서 애틋한 그리움을 갖기까지 그가 치러낸 이야기들이 들어있다.

이외수의 산문을 읽다보면 소소해 보이는 일상에서도 큰 꿈을 발견할 수 있게 해준다.

내 잠 속에 비 내리는데 / 그대에게 던지는 사랑의 그물
이외수 지음 | 출판사 해냄(네오북) | 각권 9500원

yosiamun.com 추천도서

- **잡념이보배다** 생각하는백성, 김성수, 8000원
- **마음이란무엇인가** 씨앗을뿌리는사람, 달라이라마 외, 1만2800원
- **하늘로 열린 땅 티베트 타클라마칸 기행** 은행나무, 서화동, 1만3000원
- **너에겐 나무 나에겐 부처님** 조계종출판사, 양동효, 8000원
- **운명의변화** 불일출판사,정공법사,1만원

도서주문 (02)2004-8220

자기를 다스리고 병을 고치는 법

1. 나의 행복도 나의 불행도 모두 내 잘못 결코 남의 탓이 아니다.
2. 나보다 남을 위하는 일로 복을 짓고 겸손한 마음으로 덕을 쌓자.
3. 모든 것을 금전을 앞세우면 죄악과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서 생기는 것, 늘 참고 적은 것으로 만족하자.
4. 웃는 얼굴 좋고, 진실된 말, 남을 대하고 모든 것 순리에 따르자.
5. 자기 자식이 중요하면 남의 자식도 중요하고 자기의 돈이 100원이 중요하면 남의 돈 100원도 중요하다.
6. 나의 바른 삶이 나라와 후손을 위한 길임을 깊이 생각할 것이며 자기를 아끼듯 부모를 잘 섬겨야 복중에 제일 큰 복이 온다.
7. 내가 지은 모든 선과 악의 결과는 반드시 내가 받게 되는 것, 순간 순간을 후회 없이 살자.
8. 모든 사람이여 하루 한번 자기를 돌아보고 남을 미워하기 보다는 내가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자.
9. 도둑을 막기전에 울타리를 고쳐라. 고치면 고마움을 알아야 다시 울타리를 하지 않는다.
10. 자연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똑바로 말을 못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줄 것도 없지만은 가져갈 것도 없다.
11. 참다운 길로 가는 길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하면 바로 이것이 새로운 길이 보일 것이다.
12. 몸에 어혈을 제거하고 약을 먹고 1년 치료하면 10년은 젊어진다.
13. 인체의 모든병은 피가 통하지 않아 온다. 혈압, 당뇨, 암, 심장병, 저승꽃, 어떤 병이라도 피가 통하면 회춘한다.
14.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라. 그러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얻을 것이다.
15. 마음을 닦고, 공부하는 자가 자기 몸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삼시구충를 없애야 마음과 정신이 맑아진다.
16. 죽은 성인들도 하늘과 땅을 보고 공부를 하였는데 죽은 성인들 보고 애원하는가 하늘과 땅이 인간과 동물과 식물, 광물을 살려주지 않는가 하늘과 땅을 믿으면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얻을 것이다.

유황법제를 전수합니다.

지구의 중심 대한민국 울타리 없는 곳에서

전화 054)751-8225 / 011-413-0155 차석용 저자

"운명"을 읽고 나면 대길운(大吉運) 성공이 보인다!!!

마음과 운명을 바꾸어 주는 책 ○ 오희규 실화소설 운명

소설<운명>은
50%의 중간이익금을
독자에게 직접드리기위하여
서점을 통하지 않고
통신판매를 하고 있으며
책값은 책을 받으신 후
입금하시면 됩니다

■주요수록내용■
궁합이야기
성기가 말을 안들어요
딸이 미쳐가고 있어요
의처증 이야기
바꿔 놓고 생각하기
실수의 흔적
처제와의 불륜
육체란 무엇인가?
입시이야기
성형수술이야기
제발 시집가고 싶어요
세번 결혼한 검사님
잉태와 섹스의 비밀
남편과 제발 헤어지게 해 주세요
두번 태어난 보일러공의 행복
성공하는 사람은 다르다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노처녀의 사랑이야기
넘치는 정력을 주체할 수 없어요
자신의 처지를 겸허히 인정하라
운명을 바꾸는 법

건3권 완간기념 할인판매 50%

신국판
350쪽
각권정가 10,000원

전집구입시 15,000원 후불제!
(062)266-1083, 266-6693
으로 전화주시면 책 먼저 보내드립니다
입금계좌:(예금주:오희규)
농협 601175-52-016521

■책속 부록■
▶생일로 알수 있는 내 몸의 건강
▶꿈 해몽 비법 ▶띠로 보는 궁합
▶달로 보는 궁합 ▶시(時)로 보는 궁합
▶날짜로 손(살성) 보는 법 ▶삼재법

서울 · 마포구 아현3동 618-22
전 화 (02)365-8172
팩 스 (02)365-8173
홈페이지:www.indeenet.co.kr

연락처(우편번호 500-500)
광주광역시 북구 청옥(망월)동374-2번지
전화: 062-266-6693